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부모 평정척도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a Basic Life Habit Parents Rating Scale
for Infant Early Childhood

김명순(Myungsoon Kim)¹⁾

변혜원(Hyeweon Byun)²⁾

김길숙(Gilsook Kim)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basic life habit scale for infant early childhoo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1,000 parents of children aged from two to five years old in the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as.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is, the study made use of the following methods : descriptive statistics for SES variables, item-analysis, factor analysis for validity, and Cronbach's *a* for reliability. Most items were acceptable in terms of item response rates, and item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uncovered six factors, and 46 items were selected from a total of 69 items in the original scale. The six factors were (1) safety and rules (2) neatness (3) manners (4) self-help (5) eating habits (6) cleanliness. Cronbach's *a* value for the reliability of the factors ranged from .76 to .94.

Key Words : 기본생활습관(basic life habits), 평정척도(rating scale), 타당화(validity), 표준보육과정(standard childcare course), 만 2-5세 영유아(2 to 5-year-olds).

I. 서 론

기본생활습관은 한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

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으로(이원영 · 방인옥 · 박찬옥, 1992),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은 이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주)베네세코리아 유아교육연구소 소장

³⁾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Hyeweon Byun, Benesse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Donggung Bldg., 3th Fl., 736-17 Yeoksam-dong, Kangnam-Gu, Seoul 135-080, Korea
E-mail : byunrosa@benesse.co.kr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의 신체적 건강은 성장 발달의 기초가 되고, 이때 형성된 습관과 태도는 평생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여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표준보육과정, 2010).

더욱이 유아기는 인성과 기본 생활 태도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발달 특성상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는 시기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의 형성 또는 민주 질서의 구축은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박찬옥, 1994), 이때 시작된 기본생활습관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나 가치, 성공감 등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기초가 된다(정금자, 2001).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생활습관을 익힌 유아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며, 사회적 능력도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편화된 여성의 사회 진출, 저 출산 문제, 핵가족화로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소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져, 때로 관심의도를 넘어 과잉보호적 태도에 이르고 있다.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위치는 부모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기관에 와서도 다른 또래들을 배려하지 못해 자주 다투거나, 공동체의 규칙 등을 지키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기부터 익혀야 할 기본적인 생활습관 교육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유아 교육의 기본 과제에서도 인성의 바람직한 기초를 형성시키며,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생활 태도와 협동적인 생활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교육부, 1998). 그러므로 기본생

활습관의 형성은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엄세진, 2007).

이렇듯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본생활교육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가정, 사회와도 연계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교육 영역임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기본생활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출생 직후부터 시작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유아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맞게 수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이원영·방인옥·박찬옥, 1992).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도 2006년(平成 18년)부터 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적절한 운동, 조화로운 식사, 충분한 휴식·수면이 중요하다고 보고, 아이의 기본생활습관을 육성시키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는 「早寝早起き朝ごはん」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문부과학성, 2010). 운동추진의 기본 배경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혼란이 아이의 학습 의욕과 체력,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며, 이는 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과 가정교육의 힘을 키워 질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생활습관에 포함되는 덕목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유사하지만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그 내용과 행동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청결, 질서, 예절, 그리고 절제와 같은 덕목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유아기에는 주로 가정 안에서 익혀야 할 개인 중심의 내용이 하위 덕목으로 구성되는 반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은 물론이고 학교 및 사회

생활에서 지켜야할 내용들이 보다 더 강화된다 (엄세진, 2006).

2006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였다. 표준보육과정(2010)에서는 기본생활영역의 목표를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올바른 습관을 길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에 두고 있다. 보육 내용은 연령별로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의 발달 수준에 따라 ‘건강, 안전, 바른생활’의 세 범주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생활에서도 강조되는 교육 내용으로 영유아의 모든 발달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형성되며, 인지적이기보다는 정의적이나 태도적인 측면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2007)에서도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청결, 바른 식생활하기, 휴

식, 즐거운 생활하기 등 자신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뿐 아니라 의복, 자신의 물건 등 주변을 깨끗이 하는 생활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 두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의 하위 덕목을 국내 선행 연구(이수진, 2005)에 근거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기본생활습관의 하위 덕목들은 문화-특수적인 개념으로써, 사회가 의도적·무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규범과 원리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 목록이므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은화·김희진·이승연, 1996).

외국 문헌에서는 본 척도와 비교할 만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평가 도구를 찾을 수 없었지만,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관련된 하위 덕목의 경향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리더십’, ‘인성교육’, ‘매너’, ‘사회적 기술’(엄세진, 2006)과 여기에 학

<표 1>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본생활습관 하위 덕목

연구자	하위 덕목
이원영·방인옥·박찬옥 (1991)	인내심, 타인 입장 존중, 질서, 주체의식 확립, 청결, 전통 윤리의식 존중, 협동, 긍정적 사고, 생명존중, 타인 신뢰감, 책임감, 근면, 공중 도덕심, 절제, 물질만능주의 탈피, 양보심, 정직, 예절
교육부 (1992)	제 5차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라 청결, 예절, 질서, 절제로 구분하여 사회생활 영역에서 제시
박찬옥 (1994)	문화적, 역사적 전통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전달되어온 행동과 현재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된 가치 있는 덕목,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거나 경험 가능한 덕목
이경우 (1994)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절, 질서, 화합, 사회 윤리와 책임과 같은 것으로써 자립심과 자기 통제를 기르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
국립교육평가원 (1995)	예절, 청결, 질서, 절제로 구분
이경우 (1995)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절, 질서, 절제, 화합, 사회윤리, 자립심과 자기절제를 기르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구분
교육부 (1998)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내의 기본생활습관 항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과 태도 및 도덕적 행동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예절, 질서, 청결, 절제를 중심 내용으로 구분

교에서 안전에 대한 지식, 습관, 태도를 길러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 교육’(Lowry, 1973; Presler, 1996)이 포함되고, ‘인지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 ‘신체적 유능성’과 같이 기본생활습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덕목 중 부분적인 덕목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Harter, 1982, 1984; Kohn & Rosman, 1972). 하지만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적, 사회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생활습관의 개념과 그 하위 덕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기본생활습관의 덕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따라 정의를 내려 보면, 기본생활습관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과 태도 및 도덕적 행동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1998). 이를 위해 영유아는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 직접 환경을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하고(표준보육과정, 2010), 기본적인 교육은 각 가정의 일상생활 안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전통 사회의 가르침에서는 기본생활교육은 머리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손발로 하는 교육, 즉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육(류철선, 2003)으로 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타 영역과는 달리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을 습득했다고 볼 수 없고,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이 외현적으로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정신이 내면화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곽노의 외, 1997). 따라서 기본생활습관 지도 후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의 필요성과 영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잘못된 평가를 할 개연성 또한 높아, 이러한 영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측

정 도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주로 만 3-6세용이고, 둘째, 유치원 등 기관에서 사용되는 척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셋째, 평가 방법은 교사 보고서 4-5점 Likert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기본생활습관 척도들은 기준이 너무 높아 어린 연령의 영아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이 교사 평정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물론 교사 평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경력이 높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유아를 관찰하였고, 여러 집단 상황에서 유아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왔기 때문에 개별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력이 낮거나 연령 집단의 학습을 처음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사 1인이 다수의 유아들에게 아주 엄격하거나 또는 반대로 너그러하게 평정을 하는 오류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 철학 등에 따라 기본생활을 적극 강조하는 곳일 경우 더 엄격하게 개별 유아를 평정할 수도 있어 교사 평정의 단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반해 부모는 교사에 비해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하여 왔고, 기관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일대일로 상호작용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평정하는 것에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주로 먹고, 닦고, 옷을 입거나 어른께 인사나 공중예절 등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거나, 어머니들 또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가정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우남희 외, 2009) 평소의 관찰을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 제시한 영유아 보육 실태 일반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육 영유아 수 126,219명 중 만 1세 미만은 5,215명, 만 1세 16,176명, 만 2세 29,038명, 만 3세 28,520명, 만 4세 25,115명, 만 5세 20,268명으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 중 만 3세 미만 영유아의 취원율은 전체 40%에 다다른다. 그러나 어린 영아들의 취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가능한 척도의 부재는 영아 대상 척도 개발의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부모가 자녀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 연속되는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여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 2-5세를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만 2-5세 영유아 대상의 기본생활습관 척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정도를 잴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의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2-5세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2-5세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만 2-5세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2-5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이었다. 연구 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B 교육 기업의 만 2-5세 자녀를 둔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웹회원 부모 390,748명 중 메일 수신에 동의한 회원 163,675명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중 연구에 참여하고자 응답한 회원을 각 연령당 250명씩 응답순으로 총 1,000명을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인 만 2-5세 영유아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수와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남자는 총 454(45.4%)명이었고 여자는 546(54.6)명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많았으나 각 연령집단에서 남아와 여아의 평균 연령은 거의 비슷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나 가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첫째 자녀인 경우가 86.1%로 가장 많았고, 83.3%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중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4년제 졸업

<표 2> 연령별,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영유아 수와 평균 연령 (N = 1,000)

	만 2세(n = 250)		만 3세(n = 250)		만 4세(n = 250)		만 5세(n = 25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빈도	124	126	99	151	115	135	116	134
(%)	(12.4)	(12.6)	(9.9)	(15.1)	(11.5)	(13.5)	(11.6)	(13.4)
평균 연령	30.2개월	30.5개월	41.7개월	41.6개월	53.0개월	54.2개월	66.0개월	66.6개월
(SD)	(3.38)	(3.18)	(3.39)	(3.20)	(3.33)	(3.77)	(3.65)	(3.39)
전체	30.3개월		41.6개월		53.7개월		65.8개월	

<표 3> 연구 대상 영유아와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1,000)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지역	서울	451(45.1)	대상 영유아 연령	만 2세	250(25.0)
	경기	442(44.2)		만 3세	250(25.0)
	인천	106(10.6)		만 4세	250(25.0)
	무응답	1(0.1)		만 5세	250(25.0)
출생 순위	첫째	861(86.1)	성	남	454(45.4)
	둘째	126(12.6)		여	546(54.6)
	셋째	12(1.2)	재원 현황	다닌다	833(83.3)
	넷째	-		안다닌다	167(16.7)
	기타	1(0.1)		부 연령	20대
부 연령	20대	9(0.9)	30대		894(89.4)
	30대	775(77.5)	40대		67(6.7)
	40대	211(21.1)	50대		-
	50대	5(0.5)	60대 이상		-
	60대 이상	-	모 학력	초등학교 졸업	-
부 학력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1(0.1)		고등학교 졸업	198(19.8)
	고등학교 졸업	161(16.1)		전문대 졸업	234(23.4)
	전문대 졸업	196(19.6)		4년제 대학 졸업	488(48.8)
	4년제 대학 졸업	474(47.4)		대학원 이상	80(8.0)
	대학원 이상	168(16.8)	응답자	100만원 미만	2(0.2)
응답자	어머니	917(91.7)		100-200만원	77(7.7)
	아버지	77(7.7)		200-300만원	270(27.0)
	할머니	3(0.3)		300-400만원	249(24.9)
				400-500만원	173(17.3)
	할아버지	1(0.1)		500-600만원	110(11.0)
				600-700만원	48(4.8)
				700-800만원	24(2.4)
			800만원 이상	47(4.7)	
기타	2(0.2)	월 수입			

자가 47~48%로 높았으며 월수입은 우리나라 평균 가계 소득인 약 400만원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2. 연구 도구

1) 기본생활습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본 연구자들이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2010) ‘기

본생활’ 영역을 참고해 기초 문항을 작성하였고, 개정 유치원교육과정(2007)의 기본생활습관 영역을 비롯한 주요 문헌과 척도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처음에는 69문항이었고, 10회중 1회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 1점, 10회 중 2-3회가 나타날 경우 2점, 10회 중 4-6회가 나타날 경우 3점, 10회 중 7-8회가 나타날 경우 4점, 10회 중 9회 이상

<표 4>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초기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이를 닦는다.	36	신호를 지켜 길을 건넌다.
2	스스로 이를 닦는다	37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께 존댓말을 한다.
3	스스로 외투를 벗는다.	38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잔다.
4	스스로 자신의 옷을 꺼내 입는다.	39	정직하게 행동한다.
5	어른께 공손한 태도로 인사한다.	40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켜다 하며 장난치지 않는다.
6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친절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41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7	약속을 지킨다.	42	벽이나 책상에 낙서하지 않는다.
8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근다.	43	놀고 난 후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9	놀이할 때 규칙을 지킨다.	44	신발을 바르게 신는다.
10	바르게 앉아서 식사를 한다.	45	놀잇감을 친구와 함께 가지고 논다.
11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	46	차레를 지켜 승·하차(차량, 엘리베이터 등)를 한다.
12	얼굴을 씻는다.	47	차(자가용, 버스, 기차 등)가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를 한다.
13	스스로 얼굴을 씻는다.	48	외출 후 손을 씻는다.
14	배변 후에 손을 씻는다.	49	외출 후 스스로 손을 씻는다.
15	배변 후 변기의 물을 내린다.	50	자신의 신발을 바르게 정리한다.
16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51	자신의 물건을 정리·정돈한다.
17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지 않는다.	52	어른에게서 선물을 받을 때 인사를 하며 받는다.
18	버릴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버릴 수 있다.	53	밥알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
19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한다.	54	몸을 씻는다.
20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다.	55	스스로 몸을 씻는다.
21	화장실(변기, 세면대 등)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56	친구들과 인사를 잘 한다.
22	배변 후 엉덩이를 닦거나 닦아 달라고 한다.	57	실수에 대하여 사과한다.
23	차 안(자가용, 버스, 지하철 등)에서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다.	58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24	도로나 길가에서 놀지 않는다.	59	화장실(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한다.
25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60	웃어른께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한다.
26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	61	버스, 식당 등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
27	콧물이나 침을 처리한다.	62	자신이 사용한 컵, 수저 등을 싱크대에 갖다 둔다.
28	스스로 콧물이나 침을 처리한다.	63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거나, 갈아입으려고 한다.
29	불(가스레인지 등)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64	버스, 식당,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30	위험 물질(약품류, 세제류 등)을 알고 만지거나 먹지 않는다.	65	화장실 사용 후 불을 끈다(손이 안 닿을 경우, 불을 꺼달라고 말한다).
31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한다.	66	벗은 옷을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는다.
32	속옷(팬티, 양말 등)을 혼자 입는다.	67	입 안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33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68	비누를 사용한 후 물에 녹지 않게 둔다(물비누 사용 시 적당량을 덜어 쓴다)
34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한다.	69	사용 후에 풀과 사인펜 뚜껑을 덮는다.
35	놀이할 때 차레를 지킨다.		

은 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총점 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초기 문항은 표 4에 제시하였다.

2) 국립교육평가원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 도구로 국립교육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광노의 외(1997)가 개발한 유아 기본생활습관 평가 도구(부모용)를 사용했다. 이 도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지도 항목을 청결, 질서, 예절, 절제 네 개 덕목으로 분류하여, 청결 19문항, 질서 15문항, 예절 16문항, 절제 12문항 등 총 62 문항이며, 5단계 평가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1-5 단계 평정 결과에 대해 1-5점으로 평정하였고, 가능한 총점은 62-310점이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에서 문항 내용의 적절성과 연령 적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3월 12일에서 17일까지 만 2-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23명과 전문가 6명이 설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했다, 할 수 있다’의 문제를 ‘~한다’ 체로 바꾸고, 모호한 문항은 삭제 수정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8, 12, 14, 15, 18, 23, 26-28, 31, 34, 37-39, 44, 47, 49, 54, 55, 62, 65, 67, 68 총 23개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0년 4월 12일~16일 사이에 웹을 통해 실시되었다. B 기관의 교육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만 2-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163,675 명에게 발송되었고, 회수된 사람 중 연령별로

250명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7.0 윈도우용 프로그램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1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통과율과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았다. 문항 통과율은 각 문항 별로 75%를 기준으로 65~85% 범위에 있는 영유아의 평정척도 점수를 표시하였으며,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정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에 속하는 상, 하 집단으로 나누고, 상, 하 집단 간 문항 반응의 카이제곱(χ^2)과 Cramer V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2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용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 및 공인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외적 준거인 광노의 외(1997)가 개발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총점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3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의 문항 양호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69문항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

에 제시되어 있다. 69문항에 대한 전체 연령의 점수를 5점 척도의 문항 평균값으로 환산해 보면 2.83~4.44의 범위이고, 표준편차는 .86~1.41로 나타났다.

1) 문항 통과율

각 문항은 연령별로 문항 통과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문항 통과율은 각 문항이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

<표 5> 기본생활습관 초기 척도의 연령별 75% 문항 통과율 점수 (N = 1,000)

문항 번호	만 2세 (n = 250)	만 3세 (n = 250)	만 4세 (n = 250)	만 5세 (n = 250)	문항 번호	만 2세 (n = 250)	만 3세 (n = 250)	만 4세 (n = 250)	만 5세 (n = 250)
1	4*	4	4	4	36	3	4	4	5
2	3	3	3	3	37	3	3	3	3
3	3	4	4	4	38	3	3	3	3
4	2	2	2	2	39	3	4	4	4
5	3	3	3	3	40	3	4	4	4
6	3	3	3	3	41	3	4	4	4
7	3	3	3	3	42	3	4	4	4
8	3	4	5	5	43	2	3	3	3
9	3	3	4	4	44	3	4	4	4
10	3	3	3	3	45	3	4	4	4
11	4	4	4	4	46	3	4	4	4
12	4	4	4	5	47	4	4	4	5
13	3	3	3	4	48	4	4	4	5
14	3	3	3	4	49	3	3	4	4
15	3	4	4	4	50	2	3	3	3
16	3	4	4	4	51	3	3	3	3
17	4	4	4	4	52	3	3	3	4
18	3	4	4	4	53	3	3	3	3
19	4	4	4	5	54	4	4	4	4
20	2	3	3	3	55	2	2	2	2
21	3	4	4	4	56	3	4	4	4
22	4	5	5	5	57	3	3	3	3
23	3	4	4	4	58	3	3	3	3
24	3	4	4	4	59	4	5	5	5
25	4	4	4	4	60	3	3	3	3
26	3	4	4	4	61	3	3	4	4
27	3	4	4	4	62	4	3	3	3
28	3	3	3	4	63	4	4	4	4
29	4	5	5	5	64	3	4	4	4
30	3	5	5	5	65	3	4	4	4
31	2	3	3	3	66	2	3	3	3
32	3	4	4	4	67	3	3	3	3
33	4	4	4	4	68	3	4	4	4
34	4	4	4	5	69	3	3	3	4
35	3	4	4	4					

* 1점 10회중 1회 이하, 2점 10회중 2, 3회, 3점 10회중 4-6회, 4점 10회중 7, 8회, 5점 10회중 9회 이상

해서 각 연령별로 75% 범위의 영유아가 각 문항을 통과한 위치를 평정 점수로 표시하였다. 산출 결과 만 2세는 2-4점, 만 3세부터 5세는 2-5점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만 2-5세 영유아들이 통

과할 수 있는 문항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연령을 통틀어 문항 통과가 어렵지 않았던 문항은 ‘22번 배변 후 엉덩이를 닦거나 닦아달라고 한다’, ‘29번 불(가스레인지 등)을 가지고

<표 6>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문항 평균 및 문항 변별도 (N = 1,000)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χ^2	df	Cramer's V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χ^2	df	Cramer's V
1	4.09	1.09	154.3***	8	.28***	36	4.22	1.07	486.6***	8	.49***
2	3.23	1.28	192.6***	8	.31***	37	3.35	1.08	183.5***	8	.30***
3	3.90	1.14	300.5***	8	.39***	38	3.56	1.06	199.9***	8	.32***
4	2.85	1.29	247.9***	8	.35***	39	3.90	.92	429.3***	8	.46***
5	3.61	1.09	194.3***	8	.31***	40	3.89	1.19	422.7***	8	.46***
6	3.59	1.05	222.7***	8	.33***	41	3.79	1.06	459.9***	8	.48***
7	3.40	1.05	373.4***	8	.43***	42	3.84	1.15	329.2***	8	.41***
8	4.18	1.20	353.1***	8	.42***	43	3.13	1.11	380.9***	8	.44***
9	3.65	1.03	474.7***	8	.49***	44	4.00	1.09	497.2***	8	.50***
10	3.14	1.09	246.7***	8	.35***	45	3.85	.95	576.8***	8	.54***
11	4.31	.94	225.9***	8	.34***	46	4.05	.97	570.5***	8	.53***
12	4.31	.98	234.5***	8	.34***	47	4.31	.93	418.2***	8	.46***
13	3.56	1.24	315.9***	8	.40***	48	4.36	.86	227.3***	8	.34***
14	3.56	1.25	297.6***	8	.39***	49	3.76	1.15	385.5***	8	.44***
15	3.97	1.26	213.4***	8	.33***	50	3.49	1.17	405.3***	8	.45***
16	3.96	1.01	263.4***	8	.36***	51	3.30	1.09	397.8***	8	.45***
17	4.19	1.04	280.4***	8	.37***	52	3.74	1.02	374.8***	8	.43***
18	4.06	1.08	386.1***	8	.44***	53	3.43	1.13	331.3***	8	.41***
19	4.28	1.02	380.8***	8	.44***	54	4.07	1.02	190.1***	8	.31***
20	3.30	1.24	383.9***	8	.44***	55	2.83	1.20	268.1***	8	.37***
21	3.86	1.10	396.6***	8	.45***	56	3.83	1.02	253.0***	8	.36***
22	4.44	1.02	121.3***	8	.25***	57	3.64	1.03	315.3***	8	.40***
23	3.97	1.03	279.3***	8	.37***	58	3.48	1.14	164.7***	8	.29***
24	4.16	1.04	351.3***	8	.42***	59	4.40	1.05	289.6***	8	.38***
25	4.27	.92	345.8***	8	.42***	60	3.61	1.04	378.1***	8	.44***
26	3.72	1.33	249.9***	8	.35***	61	3.74	1.06	392.0***	8	.44***
27	4.08	1.07	349.0***	8	.42***	62	3.80	1.09	198.8***	8	.32***
28	3.62	1.21	373.8***	8	.43***	63	4.21	.98	237.9***	8	.35***
29	4.44	1.16	245.9***	8	.35***	64	3.79	.99	387.8***	8	.44***
30	4.25	1.23	282.6***	8	.38***	65	4.10	1.11	349.5***	8	.42***
31	3.17	1.41	151.0***	8	.28***	66	3.14	1.18	373.1***	8	.43***
32	3.86	1.20	486.6***	8	.49***	67	3.18	1.06	364.7***	8	.43***
33	4.30	.92	325.7***	8	.40***	68	3.85	1.14	429.2***	8	.46***
34	4.35	.91	423.4***	8	.46***	69	3.61	1.18	420.0***	8	.46***
35	4.00	.98	525.7***	8	.51***						

***p < .001.

장난하지 않는다’, ‘59번 화장실(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한다’ 였고, 가장 통과가 어려웠던 문항은 ‘4번 스스로 자신의 옷을 꺼내 입는다’와 ‘55번 스스로 몸을 씻는다’로 나타났다.

2) 문항 변별도

문항 변별도는 69개 문항 모두 $p < .001$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문항 점수와 총점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Cramer의 V 값은 .25 ~ .54 범위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변별도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30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네 개의 문항에서만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항의 변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의 타당도

1) 내용 타당도

기본생활습관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학 교수 1명, 아동학 전공 박사 1명, 박사 과정생 1명이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각 척도치에 객관적인 준거를 제시해 5점 척도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하는 표준 평정척도(이은혜, 2007)를 사용하였다(예 : 10회를 기준으로 ‘10회중 1회 이하~10회중 9회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 문항 서술의 문제점, 관련 영역과 연관성이 적은 문항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9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

문항 69개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KMO (Keiser-Meyer-Olkin) 측도 값은 .96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서 적합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살펴본 결과도 유의확률이 .000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사례의 수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하위 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하고자 69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 회전은 direct oblimin 회전법을 실시하였다. 회전 후 6개의 요인에 각 문항의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해당 하위 영역에 .40 이상이었지만, .30 미만인 문항과 두 개의 요인에 이중으로 부하를 보인 문항은 최종 척도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8, 12, 14, 15, 18, 23, 26-28, 31, 34, 37-39, 44, 47, 49, 54, 55, 62, 65, 67, 68 이었다. 문항 삭제 후 고유치가 1이상인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6개 요인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를 제시한 것이다. 표 7을 보면 6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56.4%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요인은 안전, 놀이 규칙, 공공 규칙을 나타내는 기본생활관련 문항들(18문항)로 전체 변량의 36.6%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하위 요인을 ‘안전 및 규칙’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주변 정리나 활동 후 정리와 관련된 문항들(5문항)로 전체 변량의 5.8%를 설명하고 있고, 이를 ‘정리정돈’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타인에 대한 감사, 사과를 나타내는 문항들(7문항)로 전체 변량의 4.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예절’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문항들(6문

항)로 전체 변량의 3.9%를 설명하고 있고, 이를 ‘자조’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할 태도와 관련한 문항들(4문항)로 전체 변량의 3.0%를 나타내고 있고, ‘식사습

관’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요인은 씻기 등 깨끗함을 유지하는 태도와 관련한 문항들(6문항)로 전체 변량의 2.8%로 이를 ‘청결’로 명명하였다. 요약하면,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6개

<표 7>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 ²
40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켜다 하며 장난치지 않는다.	.787					.62
41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775					.65
30	위험물질(약품류, 세제류 등)을 알고 만지거나 먹지 않는다.	.751					.59
29	불(가스레인지 등)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	.707					.61
42	벽이나 책상에 낙서하지 않는다.	.697					.50
20	옷장이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다.	.607					.53
24	도로나 길가에서 놀지 않는다.	.536					.57
35	놀이할 때 차례를 지킨다.	.535					.62
46	차례를 지켜 승·하차(차량, 엘리베이터 등)를 한다.	.501					.62
61	버스, 식당 등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	.497					.54
36	신호를 지켜 길을 건넌다.	.485					.57
64	버스, 식당,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481					.54
9	놀이할 때 규칙을 지킨다.	.471					.57
17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지 않는다.	.420					.45
45	놀잇감을 친구와 함께 가지고 논다.	.416					.61
25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405					.60
21	화장실(변기, 세면대 등)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396					.46
19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한다.	.372					.51
66	벗은 옷을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는다.		.544				.56
51	자신의 물건을 정리·정돈한다.		.540				.65
50	자신의 신발을 바르게 정리한다.		.517				.55
43	놀고 난 후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500				.60
69	사용 후에 풀과 사인펜 뚜껑을 덮는다.		.437				.50
6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친절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899			.74
5	어른께 공손한 태도로 인사한다.			.857			.69
57	실수에 대하여 사과한다.			.738			.62
56	친구들과 인사를 잘 한다.			.732			.57
52	어른에게서 선물을 받을 때 인사를 하며 받는다.			.683			.62
60	웃어른께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한다.			.492			.53
7	약속을 지킨다.			.446			.52
2	스스로 이를 닦는다				.754		.59
4	스스로 자신의 옷을 꺼내 입는다.				.689		.57
3	스스로 외투를 벗는다.				.678		.61
13	스스로 얼굴을 씻는다.				.589		.50
32	속옷(팬티, 양말 등)을 혼자 입는다.				.489		.63
1	이를 닦는다.				.488		.48

<표 7> 계속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2
58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662		.55
16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640		.60
53 밥알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다.					.578		.58
10 바르게 앉아서 식사를 한다.					.563		.52
63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거나, 갈아입으려고 한다.						.639	.51
22 배변 후 엉덩이를 닦거나 닦아 달라고 한다.						.633	.49
48 외출 후 손을 씻는다.						.553	.51
59 화장실(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한다.						.552	.51
33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548	.52
11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						.438	.47
고 유 값	16.857	2.662	1.947	1.793	1.392	1.285	
설 명 변 량	36.647	5.787	4.233	3.898	3.027	2.794	
총 설명 변량	36.647	42.433	46.667	50.565	53.592	56.386	

하위 영역의 총 46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표 8>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요인별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 계수

요 인	문항 수	Cronbach' a
요인 1 (안전 및 규칙)	18	.94
요인 2 (정 리 정 돈)	5	.85
요인 3 (예 절)	7	.87
요인 4 (자 조)	6	.80
요인 5 (식 사 습 관)	4	.76
요인 6 (청 결)	6	.77
전 체	46	.96

3) 공인 타당도

기본생활습관 척도와의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의 총점과 준거 척도인 국립평가원에서 의뢰를 받아 광노의 외(1997)가 제작된 기본생활습관척도와의 총점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69$ 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3.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의 신뢰도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6가지 요인 및 각 요인별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면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안전 및 규칙)은 .94, 요인 2(정리정돈)는 .85, 요인 3(예절)은 .87, 요인 4(자조)는 .80, 요인 5(식사습관)는 .76, 요인6(청결)은 .77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에서 만 2세부터 측정할 수 있는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평정척도를 개발하고자 문항별 양호도와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69 문항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Cramer V 값을 산출하였다. 먼저 만

2-5세 자녀가 가정에서 하고 있다고 성인들이 응답한 영유아 기본생활의 각 문항 평균 점수 범위는 2.83~4.44점, 표준편차는 .86~1.41이었다. 주로 3점대의 문항 평균이 많았으며, 이는 만 2세가 포함되었음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었다. 또한 각 연령별로 문항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통과율 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의 기준은 문항 통과율을 75%로 연령 집단별 적정 곤란도 수준으로 제시한 선행 연구(이은혜 외, 2005)와 발달 프로파일Ⅱ(DPⅡ)의 문항 통과율을 참조하였다. DPⅡ의 경우 최종 문항을 75%, 대체로 65%에서 85%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도 각 문항을 통과한 비율이 75% 범위에 있는 영유아의 평정 점수로 표시하였다. 그 결과, 만 2-5세 영유아 75%는 모든 문항에서 '2점(10회중 2, 3회)'을 통과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과 점수가 증진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모든 문항에서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즉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인 기술을 우선 필요로 하는 항목,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 '속옷(팬티, 양말)을 혼자 입는다', '화장실(정해진 곳)에서 배변을 한다' 등과 같은 문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달적 증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양육자의 신념이나 문화적 태도가 포함된 문항, '어른께 공손한 태도로 인사한다', '웃어른께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한다', '바르게 앉아서 식사를 한다' 등과 같이 양육자가 조기부터 모방과 의도적인 훈육에 의해 지속적으로 습관화시켜야 하는 항목들은 연령차에도 불구하고 문항 통과율 점수가 동일하였다(Miller, 1988). 이는 사회성 또는 자조 영역의 발달 특성 자체가 개인적 성향과 환경적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정도가 달라서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나며, 영유아가 또래 집단 및

기관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친구와 나누기, 차례 기다리기, 놀이 규칙 따르기 등에서 행동의 변산이 커질 수 있고, 발달적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연령일지라도 개인적 경험 차이로 인해 사회성이나 자조 영역의 행동에서 발달적 증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이은혜 외, 2005)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항 변별도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매우 양호하였으며 단지 4개의 문항에서 Cramer의 V 값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네 문항은 '1번 이를 닦는다', '22번 배변 후 엉덩이를 닦거나 닦아 달라고 한다', '31번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한다', '58번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였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상하 집단 간 차이가 경미하여 문항 변별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해석은 영역의 특성 자체가 연령에 따른 차이보다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지나치게 산술적인 자료 분석 결과에만 의존해서 문항을 삭제할 경우, 연구자가 처음 상정한 예비 구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도 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엄세진·정옥분, 2006), 본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술적인 자료 분석 결과와 함께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를 고려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약하면, 본 척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문항 반응 분포와 난이도, 변별도 면에서 양호함을 보여 주는 도구라고 판단되었다.

둘째,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46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본생활습관의 하위 요인은 '안전 및 규칙' 18문항,

‘정리정돈’ 5문항, ‘예절’ 7문항, ‘자조’ 6문항, ‘식사습관’ 4문항, ‘청결’ 6문항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인 ‘안전 및 규칙’의 경우 문항이 가장 많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위 범주를 나누어보면 안전은 ‘실내 안전 및 실외 안전’으로, 규칙은 ‘놀이 규칙 및 일반 규칙’으로 세분화하여 명명할 수 있다. 즉 ‘실내 안전’은 문항 20, 29, 30, 40번으로 4문항, ‘실외 안전’은 문항 17, 24, 25, 36, 46, 61번으로 6문항, ‘놀이 규칙’은 문항 9, 35, 41, 45번으로 4문항, ‘일반 규칙’은 문항 19, 21, 42, 64번으로 4문항이다. 이 요인 구조는 교육부(1998), 이은화 외(1996)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생활습관의 ‘청결’, ‘절제’, ‘예절’, ‘질서’의 하위 범주와 명칭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요인 1의 ‘안전 및 규칙’은 선행 연구의 ‘절제’, ‘질서’의 내용 요소와 관계가 있고, 요인 2 ‘정리정돈’은 ‘질서’, ‘절약’의 내용 요소와 관계가 있으며, 요인 5 ‘식사습관’은 ‘청결’의 내용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요인 4인 자조의 경우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우리나라 전통 아동 교재, 소학(小學)의 내용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소학에서 언급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행동인 ‘자율’의 덕목과 Montessori 프로그램이나 Weikart의 High/scope 프로그램에서 내세우는 ‘독립심’ 덕목과 일맥상통하는 구인이다(정현아, 1994). 요인 3 ‘예절’의 경우, 우리나라 영유아는 24개월 이후부터 경어 어미를 사용하는 상대 높임이 가능하고, 존대법 획득 순서는 만 2-5세에 걸쳐 상태 높임(-해요, -합니다), 존칭(진지, 병문환) 주체 존대법(-께서, -시) 높임의 순으로 발달한다(이순형, 2001). 또한 ‘감사 및 사과가 요구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부모가 출퇴근할 때’의 상황에서 인사말과 관련된 존대말 사용 정도가 높고, 그중 ‘고마움

을 말할 때’가 가장 높다(김명순·강옥경·임양미, 2008)는 선행 연구 결과는 요인 3의 ‘예절’ 구인의 내용이 만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임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서 개발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엄세진, 2006)의 요인 구조인 ‘질서’, ‘정리정돈’, ‘신 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의 7개 요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타당화 척도를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하다. 즉 본 연구의 요인 1(안전 및 규칙)은 초등학교 대상의 ‘질서’와, 요인 3(예절)은 ‘신의와 책임, 그리고 예절’과 요인 4(자조)는 ‘자율’, 요인 5(식사습관)는 ‘건강’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요인 2(정리정돈)는 ‘정리정돈’과 요인 6(청결)은 ‘청결’과 일치하는 구인이다. 이는 기본생활습관이 전 생애를 거쳐 발달하는 것임을 볼 때, 기본생활습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영아와 유아를 거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유사하지만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그 내용과 행동이 어려워지고 심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은 다르지만 본 연구의 척도와 엄세진의 척도는 유사한 구인으로 볼 수 있다.

기본생활습관 척도와 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곽노의 외(1997)가 제작한 기본생활습관 척도 총점 간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r = .69$ 로 비교적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준거 척도로서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곽노의 외(1997)의 기본생활습관 척도가 유치원의 기본생활습관의 지도와 평가 기초 자료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교사용과 부모용으로 분리되어 사용이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이었다. 위도구가 만 3-5세용이며 유치원 재원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기본생활

습관 척도와 위 척도의 ‘청결’, ‘질서’, ‘예절’, ‘절제’의 내용 간에는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 고자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96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척도는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본생활습관 척도로 신뢰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척도들과도 비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측정을 위해 개발된 척도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광노의 외(1997)가 개발한 평가 도구를 제외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광노의 외(1997)의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들을 보면, Cronbach's α 가 .76-.87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김주영·문혁준, 2006; 안현정, 2003; 정현진, 2003).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77-.94 보다 다소 낮은 수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부모 평정척도’는 우리나라 만 2세 이상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성인이 가정에서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특정 교육 웹사이트에 가입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 기본생활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영유아 수준에 맞게 구성된 척도가 부재한 상황 하에서, 만 2-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 척도 요인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다. 특히 전국 3만 7천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2010)의 ‘기본생활’ 영역을 기초로 하여 문항을 구성, 제작한 본 측정 도구는 공인된 보육과정 및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 척도인 만큼 우리나라 실정과 현 사회에서 적합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정도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영역 중의 내용과 본 척도와의 구성 내용을 비교해보면, 먼저 만 2세 표준보육과정의 경우 ‘건강한 생활’ 하위 범주에서 ‘알맞게 잠자기와 휴식하기’, ‘즐겁게 활동하기’, ‘건강에 관심 갖기’의 내용만 제외하고, 만 3-5세 표준보육과정의 경우는 ‘적당한 잠자기와 휴식하기’,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생활 실천하기’만 제외하고 본 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동일하였다. 상기 항목들은 기관에서 영유아가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실천해야하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가정에서 부모가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타당화 척도는 영유아의 기본생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본생활습관은 오랜 시간동안 고유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온 규범과 가치에 바탕을 두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개념(이은화, 1996)으로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 중단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고시 제 1998-10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개정유치원교육과정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53호.
 국립교육평가원(1995). **유치원 교육 평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곽노의 · 최민수 · 김규수 · 유구중(1997). 유아기본생활습관 평가도구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39-166.
- 김명순 · 강옥경 · 임양미(2008).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어머니의 인식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5), 273-293.
- 김주영 · 문혁준(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유아의 사회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1), 13-22.
- 류철선(2003).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의 예절 교육론. **영유아교육연구**, 6, 75-91.
- 박주희 · 이은혜(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박찬옥(1994). 도덕성 확립을 위한 유아 교육 기관의 역할. 1994년도 한국유아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유아교육학회**, 59-79.
- 보건복지부(2009). **표준보육과정**. 제2010-71호.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626-13.
- 안현정(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엄세진(2007). 아동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103-118.
- 엄세진 · 정옥분(2006).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2), 55-76.
- 우남희 · 김영심 · 이은정 · 김현신(2009).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이순형(2001). 한국아동이 초기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 시기. **아동학회지**, 21(4), 51-68.
- 이은화 · 김희진 · 이승연(1996) 기본생활습관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2), 161-177.
- 이은혜 · 박주희 · 최혜영(2005). 영유아용(만 2-5세) 발달검사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아동학회지**, 26(6), 73-88.
- 이은혜 · 이미리 · 박소연(2007). **아동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원영 · 방인옥 · 박찬옥(1992) 유치원의 기본 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회 유아교육연구**, 12(1), 71-90.
- 이수진(2005). 기본생활교육 관련 온라인 콘텐츠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금자(2001). 유아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교수 방법. **인문예술논총**, 22, 157-172.
- 정현진(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아(1994).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광옥(1999). **재미있는 수학**. 서울: 풀잎.
- 川島隆太(2009). 脳の働きと朝ごはん. 子どもの生活習慣づくりフォーラムin中部, 基調講演概略版. 東北大學.
- 生涯學習政策局男女共同參畫學習課(2010). 「早ね早おき朝ごはん」 일본문부과학성 웹사이트 <http://www.mext.go.jp>에서 2010년 8월 30일 인출.
- Alpern, G. D., Boll, T. J., & Shearer, M. S. (2000). *Developmental profile II : Manual*. Los Angeles, C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Presler, B. (1996). *Health and safety considerations : Caring for young children with exceptional health care needs*. California institute on human service (CIHS), Sonoma State University.
- Lowry, C. S. (1973). *Safety education curriculum*. Bureau of Indian affairs (Dept. of interior), Albuquerque, N. Mex.
- Scaffer, D. R. (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

- opment (the 5th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Kohn, M., & Ros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 Factor dimensions,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6*(3), 430-444.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2010년 12월 31일 투고, 2011년 3월 14일 수정
2011년 3월 25일 채택